



## “정부, 종교 상대 흥정말라”

### 조계종, 예산 거부... 정부·여당과 소통 단절 거듭 천명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로 4대강국민논의위원회를 통한 4대강 논의가 중단되고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로마교황청 등을 방문했던 자승 스님이 업무에 복귀한 17일 하루 동안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립장 전체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 템플스테이운영사찰 전체회의, 원로회의, 중앙총회의장단 및 상임본과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17일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오로지 정법으로 사됨을 꾀고 정진하라”는 유시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교구본사주지회의와 템플스테이운영사찰들도 각각 결의문을 내고 총무원을 지지했다.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조계종이 정부·여당과 소통을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화재 관련 정책 변화, 사찰 규제 철폐와 불교문화재 반환 요구 등 대정부 대책 등이 쏟아졌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4대강을 추진해 사회 갈등을 깊게 했고, 서민 예산을 모두 삭감한 예산안 처리는 국민의 삶·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며 “조계종은 국민과의 소통, 서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책무를 포기한 정부와 한나라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쟁위원회는 정부·한나라당 종교계 야당 시민단체와 진정한 화합의 길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국회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한 것은 더 이상 신뢰를 줄 수 없는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 원로회의 “정법으로 사됨 끊으라” 유시 자승 스님 “불이익 감내 변화해야 한다”

MB정부 들어 계속된 종교편향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원담 스님은 “정부가 종교갈등을 중재하고 이를 막는 제도적 노력 대신 이를 두고 각 종교에 대한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템플스테이도 문화 프로그램이 아닌 종교적인 문제로서 은혜를 베풀 뜻이 간주한다”면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 등도 전액 삭감시킨 장사치의 시각에 민족 문화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정부·여당에 대한 항

의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조계종은 이번 템플스테이 예산안 사태를 사찰 등 문화재 보전에 관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이다.

원담 스님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더 이상 템플스테이

예산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7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템플스테이) 예산문제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 신도들의 힘으로 자생할 것과 의식전환을 이뤄야 한다. 한목 소리로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 아쉬움과 불이익을 감내해서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구본사의 이해관계 따라 정책 드라이브에 수차례 브레이크가 걸렸던 전례로 불 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총무원의 ‘정부·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 금지’ 공포 후인 16일 범어서 천왕문 화재 위로 방문차 범어서를 찾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를 범어서 측이 받아들인 것이 그 예이다. 정어 스님은 김무성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현장을 소개하는데 이어 점심 공양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립장 전체회의에서 “범어서 천왕문 화재를 빌미로 찾아온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에게 덕담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아래서는 총무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외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어 스님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교구본사 책임자로서 중단 지침을 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론은 냉정하다. 한나라당 당직자의 범어서 방문 소식에 “조계종은 손발이 안맞는 것 같다”라는 말이 들린다.

한편, 봉은사 사태로 “정권의 하수인” 취급을 받아온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번 파문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눈 내린 조계사의 아침 12월 17일 이른 아침, 조계사(주지 토진) 앞마당에 허얀 눈이 내렸다. 스님들과 총무원들이 쌓인 눈을 쓸어내고, 쓸어낸 마당 위로 또 다시 눈이 쌓였다. 마치 한 해가 저물고 저무는 시간 위로 또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 “사찰, 아낌없이 내주고 거침없이 나섰다”

###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전통사찰 인식 변화 촉구



“전통사찰은 일개 종교시설물이 아닌 민족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봐야한다.”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2월 16일 통도사에서 발행된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출판 봉정식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 “KTX 울산역의 통도사역 병기가 이웃종교 반발로 무산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됐다”며 말을 꺼냈다. 스님은 “호국·구국으로 불교가

흔히 설명된다. 통도사도 창건 이래 1300여 년을 우리 민족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지내왔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때 통도사는 스님들이 직접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곳이었다.

정우 스님은 “왜구들의 보복으로 대웅전이 소실되면서 통도사는 50년 가까이 대웅전이 없던 시절도 있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일본강점기에는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이 통도사 대중과 통도중학생 등을 이끌고 항거하다 통도중학교가 폐교된 적도 있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국군통합병원에 준하는 규모의 야전병원으로 절을 내주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정우 스님은 “개산 이후 1300여년 동안 민족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도 통도사에는 국보 등 4만 여점의 성보문화재가 있다”며 “전통사찰이라면 종교를 떠나 민족문화의 보고로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조동섭 기자

#### 정찬주의 행복한 禪·여행 ⑦

말인사 3

중국불교에 대한 수필 스님의 단상이다. 몇 년 전 스님이 북경시 어느 절 관음원의 계단을 내려서는 데 난생 처음 보는 중국불자가 스님을 보더니 땅바닥에 엎드려 삼배를 했다고 한다. 그 불자가 얼마간의 돈을 두 손으로 이마에 받쳐 들고 보시를 하자, 뒤따라오던 스무 명중 되는 중국신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삼배를 하여 옆에 있던 안국선원 신도들이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이다. 그때 스님은 “과연 우리 한국불자들도 저런 신심이 있을까, 중국불교가 사라졌던 게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간여하고 있지만 그 밑뿌리에는 알게 모르게 저력이 있구나, 언젠가 좋은 입장으로 밖으로 나올 때가 있겠구나” 하고 느꼈다고 한다.

#### 중국불교의 미래는 밝다

성철 스님은 “오대산, 보타산이 따로 없다. 신심이 성지(聖地)다. 신심만 있으면 문수보살이나 관음보살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중국의 젊은 스님들을 만나고 나서 좀 실망을 했다. 당에서 파견된 당원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안휘성 무호시 어느 절의 방장스님을 뵈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노스님은 절 이곳저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니 산문을 나와 차를 탄 우리 일행을 향해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배웅했다. 나와 일행 모두의 아상을 깨뜨려 준 하심(下心)의 한 방향이었다. 한국 불교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그 노스님의 깊은 신심을 생각하면 미구에 중국선종이 되살아날 것 같고, 제2의 당송시대 불교가 도래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19면에 계속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 네츄럴 삼베 명석 카펫

- ◇ 원산·제조 : 한국
-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등
- ◇ 가격 : 330,000원

####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연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120,000원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60,000원

- ◇ 용도 (공통) : 요기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황궁, 휴식 등에 사용
-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